

**언어와 매체,
문법 개념과 유형을 정확히 익히면
국어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법 개념은 오랫동안 배우고 외워도 늘 새롭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매체는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이스토리〉는 최신 수능 언어(문법), 매체의
모든 문제와 지문, 〈보기〉를 분석하여
문법 개념과 매체 유형을 쉽게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 단계별로 구성했습니다.

문법은 필수 개념을 쉽게 풀이하고,
자주 출제되는 예문과 실제 기출 선택지를 활용한 개념 완성 TEST,
문제 풀이 과정을 시각화한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등을 통해
학습한 개념을 문제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매체는 문제 유형 특강을 통해
출제되는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도록 했습니다.

지금부터
국어가 쉬워지는 자이스토리로 재미있게 공부해 보세요.
문제가 술술 풀리고 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쌓여
반드시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No.1 수능 문제집 자이스토리 -



내신+수능 1등급 완성 학습 계획표 [36일]

Day	페이지	틀린 문제 / 헛갈리는 문제 번호 적기	날짜		복습 날짜	
1	A 14~21		월	일	월	일
2	B 22~30		월	일	월	일
3	C 31~39		월	일	월	일
4	40~48		월	일	월	일
5	D 50~61		월	일	월	일
6	62~E 73		월	일	월	일
7	74~F 84		월	일	월	일
8	G 85~93		월	일	월	일
9	H 94~105		월	일	월	일
10	I 108~119		월	일	월	일
11	J 120~129		월	일	월	일
12	130~K 143		월	일	월	일
13	144~L 153		월	일	월	일
14	154~M 163		월	일	월	일
15	164~N 173		월	일	월	일
16	174~O 183		월	일	월	일
17	184~193		월	일	월	일
18	P 194~201		월	일	월	일
19	202~Q 209		월	일	월	일
20	R 212~S 221		월	일	월	일
21	222~229		월	일	월	일
22	230~238		월	일	월	일
23	T 240~251		월	일	월	일
24	252~U 261		월	일	월	일
25	262~272		월	일	월	일
26	V 274~283		월	일	월	일
27	284~295		월	일	월	일
28	296~303		월	일	월	일
29	W 306~312		월	일	월	일
30	313~324		월	일	월	일
31	325~334		월	일	월	일
32	335~X 346		월	일	월	일
33	347~355		월	일	월	일
34	356~365		월	일	월	일
35	366~374		월	일	월	일
36	375~382		월	일	월	일



- 나는 _____ 대학교 _____ 학과 _____ 학년이 된다.
- 磨斧作針 (마부작침)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이를 수 있음을 비유하는 말)

☘ 문항 배열 및 구성 [607문항 + 958문항]

① 최신 11개년 수능, 모의평가, 학력평가 전 문항 수록

- 2024학년도~2014학년도까지 11개년 수능·모의평가·학력평가 언어와 매체 전 문항 (606 문항)을 수록했습니다.

② 문법 개념을 확인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개념 완성 TEST 수록

-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스스로 정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기출 선택지를 변형한 확인 문제(958문항)를 수록하였습니다.

③ 1등급 대비 문제를 선별하여 1등급 대비 문제 풀이 특강 수록

- 고난도 1등급 대비 문제를 선별하여 표시하고, 1등급 대비 문제 특강을 수록하여 문제 풀이 과정을 익히고 단원별 고난도 유형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④ 개념 → 개념 완성 TEST → 내신·학평 기출문제 단계별 수록

- 개념을 공부한 후 개념 완성 TEST로 자주 출제되는 용례를 바탕으로 개념을 확인한 뒤 기출문제로 실력을 다지도록 구성하여 수능 국어 1등급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했습니다.

2023 대비 6월, 9월 모의+수능

[자이스토리 국어 언어(문법)와 매체 실전 구성표 1,565제]

대비 연도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수능*	문항수
2024	11	11	11	11	11	11	11	77
2023	11	11	11	11	11	11	11	77
2022	11	11	11	11	11	11	11	77
2021	5	5	5	5	5	5	5	35
2020	5	5	5	5	5	5	5	35
2019	5	5	5	5	5	5	5	35
2018	5	5	5	5	5	5	5	35
2017	5	5	5	6	5	5	5	36
2016*	9	9	9	9	9	9	9	63
2015*	9	9	9	9	9	9	8*	62
2014*	9	9	9	9	9	9	9	63
2022 수능 예시								11
고2 우수 문항								1
개념 완성 TEST								958
총 문항 수								1,565

언어와 매체 문항 배치표 (홀수형 기준)

문항 번호	6월	9월	수능
35	V19	T27	T37
36	V20	T28	T38
37	L20	C32	E21
38	C06	L09	N11
39	N12	S14	I04
40	W61	W69	W01
41	W62	W70	W02
42	W63	W71	W03
43	W64	W72	W04
44	X47	X51	X55
45	X48	X52	X56

* 수능은 홀수형을 기준으로 함.

* 2014 ~ 2016 대비는 A/B형으로 구분함.

* 2015 대비 수능 11번 모음 축약 문제는 수록하지 않음.

PART I 언어

I 음운

A 국어의 음운 체계

개념 01 국어의 음운 체계 14
 개념 02 국어의 자음 체계 16
 개념 03 국어의 모음 체계 18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20

B 음운 변동 I - 음운 교체

개념 04 음운 교체 22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24

C 음운 변동 II - 음운 탈락·첨가·축약

개념 05 음운 탈락 31
 개념 06 음운 첨가 33
 개념 07 음운 축약 33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35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36

II 단어

D 단어의 구조와 형성

개념 08 단어와 형태소 50
 개념 09 단어의 형성 52
 개념 10 복합어 54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58

E 품사 I - 체언, 용언

개념 11 품사의 분류 기준 65
 개념 12 체언 67
 개념 13 용언 69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71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72

F 품사 II -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개념 14 수식언 80
 개념 15 관계언과 독립언 82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84

G 단어의 의미 관계

개념 16 어휘의 체계와 양상 85
 개념 17 단어의 의미 관계 87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91

H 사전 활용

개념 18 사전 활용 94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96
 동아리 소개/고려대 KUAAA 106

III 문장과 담화

I 문장 성분

개념 19 문장의 구성 단위와 문장 성분 108
 개념 20 주성분 108
 개념 21 부속 성분 112
 개념 22 독립 성분 114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116

J 문장 구조

개념 23 홑문장과 겹문장 120
 개념 24 이어진문장 120
 개념 25 안은문장 122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126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127

K 문법 요소 I - 종결·높임·시간 표현

개념 26 종결 표현 136
 개념 27 높임 표현 138
 개념 28 시간 표현 140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142

L 문법 요소 II - 피동·사동·부정·인용 표현

개념 29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148
 개념 30 부정 표현 150
 개념 31 인용 표현 150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152

M 정확한 문장 표현

개념 32 정확한 문장 표현 160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162

N 담화

개념 33 담화의 개념과 요소 169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171

IV 어문 규정

O 한글 맞춤법

개념 34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178
 개념 35 소리에 관한 것 178
 개념 36 형태에 관한 것 180
 개념 37 띄어쓰기 182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184

P 표준어와 표준 발음법

개념 38 표준 발음법 총칙과 모음·받침의 발음 194
 개념 39 음의 동화와 첨가 196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198

Q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념 40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207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209
 동아리 소개/서울대 TNT 210

V 국어의 역사

R 한글의 창제 원리

개념 41 한글 창제 이전의 문자 생활 212
 개념 42 한글의 창제 원리 214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216

S 중세·근대·현대 국어의 비교

개념 43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218
 개념 44 근대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220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222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223

VI 개념 복합, 지문 세트 유형

T 개념 복합 유형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240
 수능 유형별 기출문제 242

U 지문 세트 유형 - 현대 국어 단독 유형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260
 수능 유형별 기출문제 262

V 지문 세트 유형 - 중세·근대·현대 국어의 비교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274
 수능 유형별 기출문제 276

PART II 매체

W 매체

개념 45 매체의 개념과 유형 305
 개념 46 매체 언어의 개념과 특성 305
 개념 47 매체 자료의 수용과 생산 306
 개념 48 생활 속의 매체 및 매체에 관한 태도 306
 수능 유형별 기출문제 307

X 언어와 매체 복합

문제 유형 풀이 특강 343
 수능 유형별 기출문제 346



개념어 + 어휘 총정리 383

문법 개념 찾아보기 397

빠른 정답 찾기 400

5 개념어 + 어휘 총정리

- 지문, <보기>, 선택지 등에 제시된 어휘 중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푸는 데 기본이 되는 필수 어휘를 모두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6 문법 개념 찾아보기

- 핵심 문법 개념 가운데 빈출 개념만 쏙쏙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문법 개념 찾아보기를 수록하였습니다.

가변어	64	능격 부형	148	모음	16	비분할 음운	11
가측의 원리	202	ㄴ-불규칙	68	모음 탈락	31	비음	10
간접 논법	202	다의 관계	84	목적격 조사	76	비동사	110
간접 명사	135	단모음	16	목적격(수용)	14	비동사적 함의어	133
간접 명사	162	단어	48	문법 요소	133	나-불규칙	11
간접 인용	125, 148	단어어	51	문법	108	나-불규칙	11
관동사	76	단어어	51	문법 구조	121	사동 접미사	74
관사	135	담화	162	문법 부사	74	사동 표현	112
객체 논법	135	담화의 맥락	121	문법 부사어	112	사어사어	112
개명사	209	대동격 연결 어미	121	문법 성분	108	사어사의 전성	112
개명사	14	대동격으로 연결된 어미(문장)	121	어미 사태	138	상대 논법	112

7 입체 탐사 해설!

문제 유형 분석
문제 유형을 제시하여 수능형 문제 유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택률
선택률을 통해 매력 오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분석
문제가 의미하는 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서+발상
문제가 풀이 핵심이 되는 단서를 꼭 짚어 설명합니다.
핵심 단서와 문제를 구체적으로 연결합니다.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 적용해야 할 내용입니다.
단서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 틀렸나?
학생들이 많이 틀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왜 정답?
정답이 되는 이유와 다른 오답과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문제 풀이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된 해설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근거가 되는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글의 제목
지문의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글의 제목을 제시하였습니다.

내용 풀이
중요 내용에 해석을 달아 어려운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문 어휘
지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휘의 풀이를 제시했습니다.

출제
지문 내용 중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표시하여 핵심 출제 요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
지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해 놓았습니다.

문단 요약
각 문단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전체적인 지문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단 요약
* 국어의 모음 체계

① 모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 한다. 표준어 규정은 원칙적으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를 단모음으로 발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모음: 사람이 목청을 울려 내는 소리로,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고 나는 소리)

* [문단 요약: 단모음의 개념 및 종류]

②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발음 도중에 변하는 모음은 **이중 모음**이라 하는데, 이중 모음은 홀로 쓰일 수 없는 소리인 **반모음**이 단모음과 결합한 모음이다. 예를 들어 이중 모음 인 'ㅑ'의 발음은, 'ㅑ'를 짧게 발음하는 것과 유사한 소리인 반모음 [j] 위에서 'ㅓ'가 결합한 소리이다. 'ㅑ'와 마찬가지로 'ㅓ, ㅕ, ㅗ, ㅛ, ㅜ, ㅠ, ㅡ'의 발음은, 각각 반모음 [j]와 단모음 'ㅓ, ㅕ, ㅗ, ㅛ, ㅜ, ㅠ, ㅡ'가 결합한 소리이다. 반모음 [w]가 결합한 이중 모음의 발음은 반모음 [w]가 결합한 이중 모음의 발음과 다른 발음으로 발음되는 것을 제외하고, 이중 모음의 발음은 모두 반모음이 단모음 앞에서 결합한 소리이다. (반모음: 모음과 같이 발음하지만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이중 모음)

이것이 핵심!

문단	단모음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
이중 모음	이중 모음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

이중 모음의 형성

① 형성 방법: 'ㅓ'를 제외한 이중 모음: 반모음+단모음
'ㅑ, 단모음+반모음'

② 반모음의 종류: [j], [w]

③ 문단: 단모음 'ㅓ'와 'ㅑ'의 발음: 형식 발음을 고려하여 'ㅓ'와 'ㅑ'의 발음을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함.

특강
해당 문법 개념과 관련된 개념을 추가하여 유사 문제까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매력 오답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오답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끝!
문제를 쉽고 빨리 풀 수 있는 특별한 도움말입니다.

선택지 탐사 해설
선택지만으로도 정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꼼꼼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 집필진 · 감수진 선생님들



🌸 자이스토리는 수능 준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능, 평가원,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개념별, 유형별, 난이도별로 수록하였으며, 명강의로 소문난 학교·학원 선생님들께서 명쾌한 해설을 입체 침삭으로 집필하셨습니다.

[집필진]

권하라 서울 대일외국어고등학교
노승연 서울 경기고등학교
노준철 경기 서해고등학교
배지은 서울 창동고등학교
송현우 서울 신목고등학교
신다은 서울 영광고등학교
이동훈 충북 진천고등학교
이세영 경기 수일고등학교

최솔지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
한혜령 서울 서라벌고등학교
허예현 경기 평택여자고등학교

수경출판사 국어 콘텐츠 연구소

최신 3개년 언어(문법) 수능 · 모평 동영상 강의

자이스토리 유튜브 채널

한혜령 선생님



[감수진]

강병석 서울 율바른학원
강봉진 남원 하늘중학교
강신석 양평 우리동네국어 쌤
공초롱 광주 임곡중학교
곽승협 울산 지렛대 학원
구찬미 의정부 맨투맨학원
김기은 대구 낭중지추국어논술
김도완 광주 도완국어학원
김미정 서울 김미정국어
김상언 창원 창원사파고등학교
김성곤 구미 김성곤대입국어학원
김종길 서울 김종길국어논술학원
김진주 부천 코드국어논술학원
김진희 광주 김진희국어교습소
남미래 서울 마이국어논술
노정은 대전 대전대성고등학교
문상철 부산 지식인 학원
문지현 서울 통일여자고등학교
박미진 평택 개념원리러닝센터& 개념국어학원
박상우 광주 화수분아카데미

박상준 부산 필(必)통(通) 국어학원
박윤선 광주 규장각국어학원
박재형 서울 메가스터디러셀 (대치, 강남, 중계)
박태순 서울 참좋은학원
반현태 인천 BPL_EDU
석주형 대구 고대학원
성혜련 안양 공즐학원
송재우 서울 아이엠 쌤
송지호 파주 크림슨교육
신경진 파주 여유중학교
신혜영 부산 수오재
안보람 서울 강남보람국어
유연주 서울 동일여자고등학교
유영삼 대전 여름수국어전문학원
윤진아 대구 용산포인트정석속독학원
이대건 서울 탑스터디학원
이상명 인천 국어학습 컨설턴트
이승준 창원 창원여자고등학교
이연희 울산 에이플러스학원
이원정 서산 최용훈국어전문학원

이형근 대구 알찬강의학원
임현정 시흥 신천초등학교
장기윤 구미 장쌤국어입시학원
장보현 서산 국어학습 컨설턴트
전승호 화성 비봉고등학교
전욱진 구미 김선일 국어학원
정서유 고양 바른공부학원
정수정 부산 1등급국어교습소
제달성 대구 봄날 국어
조상경 파주 운정고등학교
조효준 천안 조효준국어학원
주홍재 제주 즐거운공부학원
차장우 부산 부산 국어학원
채옥희 광주 본국어
최윤기 양산 혜운국어논술학원
최혜문 수원 수원부서관장교학원
한광희 세종 한쌤국어
한보람 대구 한보람국어
허성완 화성 동량재학원
홍성유 양주 덕정 한쌤학원

수능 선배들의 **비법** 전수 - 수험장 생생 체험 소개

긴장되고 떨리는 수험장에서 선배들이
문제를 풀면서 겪은 생생한 체험과 나만의 풀이 비법을
자이스토리 해설편에 수록했습니다.

• 2023년

강 한 서울 배재고 졸 (고려대 융합에너지공학과)
권주원 서울 배재고 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김보겸 광주서석고 졸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김수정 부산국제고 졸 (고려대 서어서문학과)
김준서 부산 대연고 졸 (부산대 의예과)
김태산 광주서석고 졸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김현서 경기 평택고 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나인규 광주 국제고 졸 (한양대 경영학과)
명준하 광주서석고 졸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박서영 부산 해운대고 졸 (서울대 심리학과)
박세민 광주 광덕고 졸 (서울대 의예과)
장경은 서울 세화여고 졸 (고려대 통계학과)
장성욱 부산 대연고 졸 (동아대학교 의예과)
정서린 서울 세화여고 졸 (서울대 약학과)
조현준 익산 이리고 졸 (전북대 의예과)
최윤성 서울 양정고 졸 (서울대 공과대학 광역)
홍채연 서울 한영고 졸 (고려대 불어불문학과)

• 2022년

강민성 부산 해운대고 졸 (성균관대 의예과)
강연욱 서울 한영고 졸 (연세대 노어노문학과)
고현웅 광주서석고 졸 (전남대 의예과)
공준형 경기 우성고 졸 (가톨릭관동대 의예과)
김서윤 경기 우성고 졸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김예리 서울 수명고 졸 (고려대 의예과)
김찬우 익산 이리고 졸 (전남대 의예과)
김혜음 경기 송신여고 졸 (서울대 인문대학)
박정빈 익산 이리고 졸 (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준현 전남 장성고 졸 (육군사관학교)
송홍준 광주 국제고 졸 (고려대 융합에너지공학과)
양예진 전주 상산고 졸 (이화여대 의예과)
오석우 공주 한일고 졸 (서울대 의예과)
오연주 전주 솔내고 졸 (서강대 사회학과)
이수현 대구 송현여고 졸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장인우 광주 고려고 졸 (서울대 인문학부)
전수현 경기 송신여고 졸 (한림대 의예과)
정지호 익산 남성고 졸 (경철대학교)
최준명 서울 양정고 졸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2024 응시



곽지훈
서울 한영외고 졸업
- 세계지리



곽태웅
서울 강서고 졸업
- 윤리와 사상



권민재
서울 광영여고 졸업
- 생명과학 I



김동현
안성 안법고 졸업
- 고3 수학 I, 고3 확률과 통계



김서현
대전한빛고 졸업
- 지구과학 I



김수민
광주 금호중앙여고 졸업
- 화학 II



김신유
익산 남성고 졸업
- 화법과 작문 실전



김아린
대전한빛고 졸업
- 독해 실전, 어법·어휘 실전



김용희
화성 화성고 졸업
- 언어와 매체 실전



김지희
광주 국제고 졸업
- 한국지리



김태현
부산 대연고 졸업
- 물리학 I



노규민
부산 용인고 졸업
- 지구과학 II



류리레
광주대동고 졸업
- 독해 실전, 어법·어휘 실전



문지민
대구 정화여고 졸업
- 생활과 윤리



박주은
대전외고 졸업
- 동아시아사



백혜원
대구남산고 졸업
- 문학 실전



변준서
화성 화성고 졸업
- 고3 수학 I, 고3 수학 II



심기현
대구 계성고 졸업
- 화학 I



오서운
서울 광문고 졸업
- 고3 수학 II, 고3 미적분



이준수
익산 남성고 졸업
- 고3 수학 II, 기하



전성연
부산국제고 졸업
- 사회·문화



조수근
성남 태원고 졸업
- 독해 실전, 어법·어휘 실전



조인성
성남 태원고 졸업
- 수능 한국사



천원준
부산 동인고 졸업
- 생명과학 II



허다현
부산 사직여고 졸업
- 독서 실전

자이스토리 국어 언어(문법)와 매체 실전 활용법+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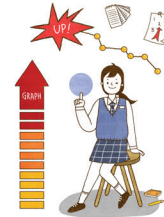
1 세분화된 문법 개념을 꼼꼼하게 학습하고, 개념 완성 TEST로 점검하기

- 문법 개념의 풀이와 주요 예시를 관련지어 암기해 두세요, 시험 볼 때 큰 도움이 됩니다.
- 자주 출제되는 예시를 바탕으로 구성된 개념 완성 TEST로 개념을 제대로 학습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 한눈에 보는 문법 개념 지도를 바탕으로 학습한 개념을 구조도나 마인드맵 형식으로 정리하세요. 머릿속에 각인되어 학습 효과가 오래 지속될 거예요.



2 최신 3개년 수능·모평 동영상 강의로 지문·문제 완벽 정복

- 문법 영역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 있어요, 최신 3개년 수능·모평의 동영상 강의를 보고 각 유형의 문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파악해 보세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접했을 때 자신감 있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 필수 개념을 꼭꼭 짚어주는 동영상 강의로, 최신 3개년 수능·모평에 출제된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 모든 문법 개념에 대해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어요.



3 개념별 최신 기출문제로 학교 시험과 수능에 대비하기.

- 개념 완성 TEST로 개념을 이해했다면 최신 기출문제로 난도를 높여가면서 해당 개념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세요. 개념별로 최신 유형의 문제를 모두 수록한 자이스토리와 함께라면 어떤 문제도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어요.
- 1등급 대비 문제로 선별된 어려운 문제 풀이에도 도전해 보세요. 내신과 수능 모두 1등급을 달성할 수 있어요.



4 입체 첨삭 해설까지 꼭 확인하고 다시는 틀리지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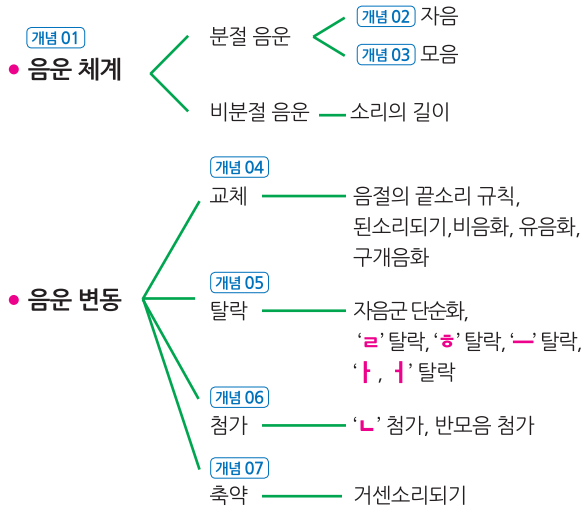
- 단순히 정답만 확인하는 것은 이제 그만! 해설을 통해 자신의 풀이 과정을 점검해 보세요. 틀린 문제와 짝어서 맞힌 문제는 꼭 다시 풀어 봐야 합니다.
-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발상', '왜 틀렸나', '매력 요답' 등을 활용하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보는 문법 개념 지도

I 음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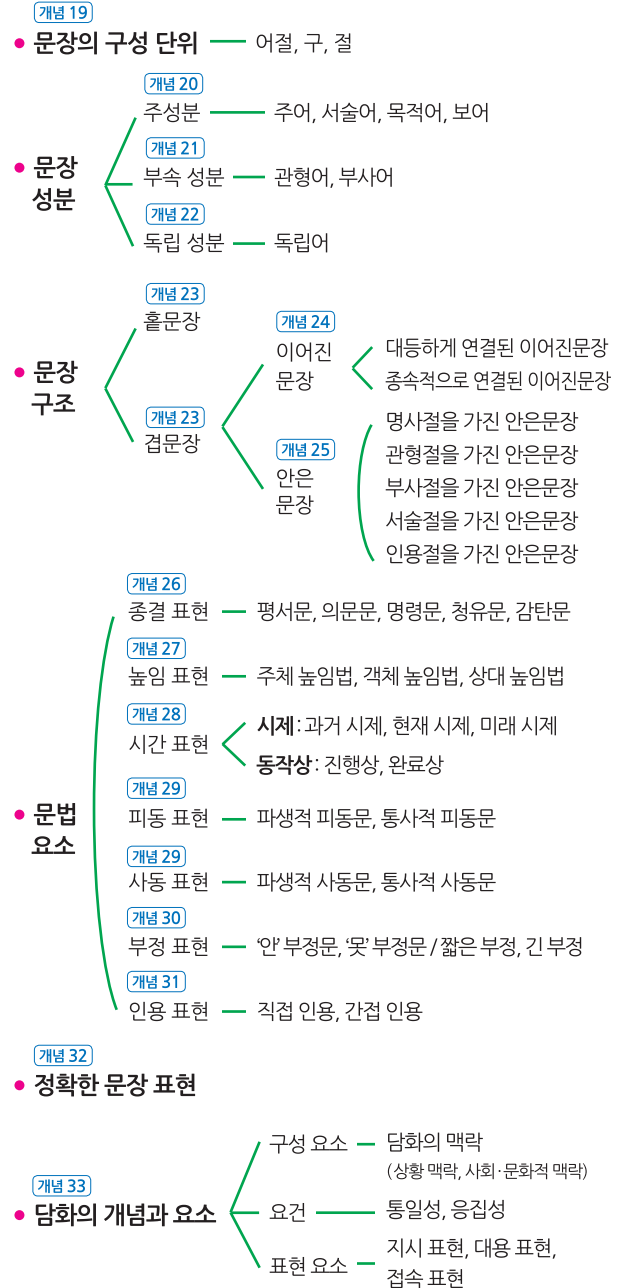
II 단어



V 국어의 역사

- 고대 국어 (한글 창제 이전의 문자 생활) 개념 41
- 중세 국어
 - 한글의 창제 원리 개념 42
 - 표기 / 음운 / 문법 / 어휘 개념 43
- 근대 국어 — 표기 / 음운 / 문법 개념 44

III 문장과 담화



IV 어문 규정

- 한글 맞춤법
 - 개념 34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총칙)
 - 개념 35 소리에 관한 것
 - 개념 36 형태에 관한 것
 - 개념 37 띄어쓰기
- 표준어 규정
 - 표준어 사정 원칙
 - 개념 38~39 표준 발음법
- 개념 40 외래어 표기법
- 개념 40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언어(문법)

국어 언어(문법) 영역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 유형은 <보기>나 지문을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문법 용어나 개념에 대한 설명을 <보기>나 지문에 제시한 후, 선택지에서 이를 적용한 사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유형입니다.

대표 문제 유형

1 <보기>를 바탕으로 개념 파악하기

C02 *** 2022 실시 7월 학평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자료]의 단어들은 음운 변동 중 탈락이 일어난 예이다. 단어들을 [분류 과정]에 따라 분류할 때 ㉠, ㉡, ㉢에 들어갈 단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료]
 ㉠ 프- + -어서 → 떠서[떠서]
 ㉡ 동글- + -ㄴ → 동근[동근]
 ㉢ 좋- + -아 → 좋아[조:아]

[분류 과정]

유형 포인트

-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등 음운 변동에 대한 개념 설명은 <보기>에 제시되기 때문에 단순히 개념을 암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 제시되는 단어의 음운 변동 양상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해야겠지요?

유형 해결 방법

- ‘읽느라’, ‘훑고서’, ‘예삿일’, ‘알약울’, ‘알았다’의 다섯 가지 단어에서 어떤 음운 변동 양상이 일어나는지 파악해 내야 해요.
- 선택지를 보면 두 가지 음운 변동 양상이 동시에 일어나네요. 한 가지만 맞는 것을 고르는 실수를 하면 안 돼요.

2 지문을 통해 개념 파악하기

[S59~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_____

음운은 단어의 뜻을 변별하는 데 사용되는 소리로 언어마다 차이가 있다. 예컨대 국어에서는 음운으로서 ‘ㅅ’과 ‘ㅆ’을 구분하지만 영어에서는 구분하지 않는다. 음운이 실제로 발음되기 위해서는 발음의 최소 단위인 음절을 이뤄야 하는데 음절의 구조도 언어마다 다르다. 국어는 한 음절 내에서 모음 앞이나 뒤에 각각 최대 하나의 자음을 둘 수 있지만 영어는 ‘spring[sprɪŋ]’처럼 한 음절 내에서 자음군이 형성될 수 있다. 음운은 그 자체로는 뜻이 없다. 음운이 하나 이상 모여 뜻을 가지면 의미의 최소 단위인 형태소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형태소를 결합하여 단어를 만들고 말을 한다. 이때 ㉠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에서 음운이 다양하게 배열되고 발음이 결정되는데, 여기에 음운 규칙이 관여한다. 예컨대 국어에서는 ‘국물[궁물]’처럼 ‘파열음-비음’ 순의 음운 배열이 만들어지면, 파열음은 동일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교체된다. 그런데 이런 음운 규칙도 모든 언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영어에서는 ‘nickname[nɪkneɪm]’처럼 ‘파열음(k)-비음(n)’이 배열되어도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S60 *** 2023 대비 6월 모평 36

㉠의 위치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기>
 ㉠ 앞일[압닐] ㉡ 장미꽃[장미꽂] ㉢ 넣고[너코]
 ㉣ 걱정[걱쟁] ㉤ 굳이[구지]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유형 포인트

- 단순히 어떠한 음운 변동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조건을 이해하고 그 조건을 바탕으로 음운 변동의 양상을 구분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유형 해결 방법

- <보기> 속 단어의 형태소를 분석하고 그 형태소 경계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세요.



I 음운

A 국어의 음운 체계

B 음운 변동 I - 음운 교체

C 음운 변동 II - 음운 탈락·첨가·축약

★ 개념 차례

A 국어의 음운 체계

개념 01 국어의 음운 체계

개념 02 국어의 자음 체계

개념 03 국어의 모음 체계

B 음운 변동 I

개념 04 음운 교체

C 음운 변동 II

개념 05 음운 탈락

개념 06 음운 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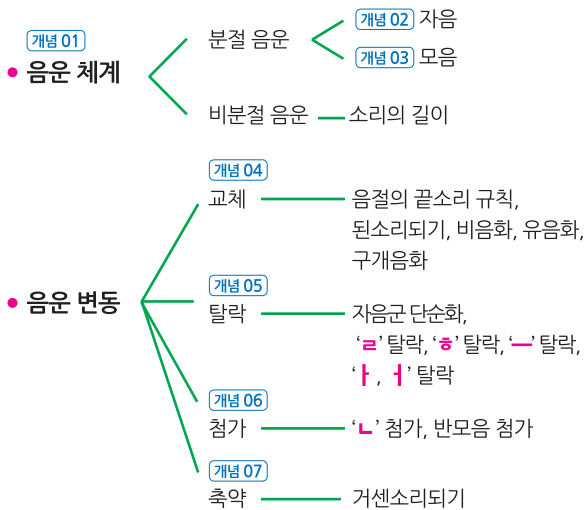
개념 07 음운 축약

★ 최신 3개년 수능·모평 출제 경향

학년도	출제 개념	난이도	
2024	수능	출제되지 않음.	
	9월	[C32] 음운 변동의 유형과 과정	**
	6월	[C06]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	**
2023	수능	[T04] 된소리되기 + 피동·사동 표현 *개념 복합 유형	*
	9월	[P01]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 후 비음화 *표준 발음법 제18항	**
	6월	[T15~16] 음운의 개념 + 국어의 음절 구조 + 음운 변동 *개념 복합 유형	**
2022	수능	출제되지 않음.	
	9월	[U03~04] 국어의 음절 구조와 음운 변동 *지문 세트 유형	**
	6월	[T23~24] 용언이 활용할 때의 음운 변동과 표기(한글 맞춤법 제18항) *지문 세트 유형	**

★ 최신 출제 경향 분석 및 대비

- [수능]: 음운 체계, 음운 변동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
- [9월]: 음운 변동의 유형과 과정을 묻는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 [6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 가 일어난 단어를 구분하는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 <I. 음운>에서는 주로 음운 변동이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과 같은 어문 규정이나 다른 개념과 복합 유형으로 출제된다.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조건과 그 양상을 이해하고 이러한 음운 변동이 표기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함께 파악해야 한다.





D 단어의 구조와 형성

개념 08 단어와 형태소

단어와 형태소는 문장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동생이 나에게 사탕을 주었다.

- 단어 7개 → 동생, ¹이, 나, 에게, 사탕, 을, 주었다
- 형태소 9개 → 동생, 이, 나, 에게, 사탕, 을, 주-, -었-, -다

1 단어

뜻을 가지고 홀로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말이나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이다. 단어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예) 나무가 무척 푸르다. → 나무, 가, 무척, 푸르다 (단어 4개로 된 문장)

↳ 뜻을 가지고 홀로 자립할 수 있는 말: 나무, 무척, 푸르다
 ↳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조사): 가

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 → 많은, 사람들, 이, 오고, 가다 (단어 5개로 된 문장)

↳ 뜻을 가지고 홀로 자립할 수 있는 말: 많은, 사람들, 오고, 가다
 ↳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조사): 이

2 형태소

1. 형태소의 개념: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더 이상 나누면 뜻을 잃어버리는 단위이다.



사과

'사'와 '과'로 나누면 의미를 잃어버리므로 '사과'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임.



사과나무



사과



나무

'사과'와 '나무'로 나누어도 의미를 잃지 않으므로 '사과나무'는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임.

2. 형태소의 종류: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와 '실질적인 의미 유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자립성의 유무	자립 형태소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의존 형태소	홀로 쓰일 수 없어 다른 형태소와 함께 쓰이는 형태소	조사, 어미, 접사, 용언의 어간
실질적인 의미 유무	실질 형태소 (어휘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형태소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용언의 어간
	형식 형태소 (문법 형태소)	문법적인 의미만을 지닌 형태소	조사, 어미, 접사

	동생	이	나	에게	사탕	을	주-	-었-	-다-
자립/의존	자립	의존	자립	의존	자립	의존	의존	의존	의존
실질/형식	실질	형식	실질	형식	실질	형식	실질	형식	형식

1 조사 '이'는 왜 단어일까?

단어는 자립성과 분리성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조사는 비록 홀로 쓰일 수는 없지만 비교적 앞말과 쉽게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한다.

예) 그녀는 사과를 먹는다.

조사 '는', '를'은 홀로 쓰일 수 없지만 '그녀'와 '사과'라는 단어에 붙어 문법적 기능을 하며, 앞 단어와 쉽게 분리될 수 있다.

2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말

다른 말에 의지하지 않고 그 자체로 쓰일 수 있는 말을 의미한다.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은 의미상 말 앞뒤로 끊어짐이 나타난다.

3 문법적인 의미

조사나 어미가 문법적으로 하는 역할로 형식상의 의미를 가리킨다.

예) 목적격 조사 '을': 앞에 오는 체언이 목적어임을 나타냄. 선어말 어미 '-었-': 과거 시제를 나타냄.

4 용언(동사, 형용사)의 형태소 분석

어간은 용언(동사, 형용사)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먹다
 먹어라
 먹었구나
 어간 어미

어간은 홀로 사용되지 못하고 '-어라', '-었구나'와 같이 어미가 결합되어야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어간은 실질 형태소이지만 의존 형태소이다.



개념 08 단어와 형태소

1 단어

*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01 단어란 뜻을 가지고 홀로 ()하여 쓸 수 있는 말이나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이다.

02 ()은/는 홀로 쓰일 수 없지만, 앞말과 쉽게 분리되어 단어로 인정한다.

03 단어는 자립성과 ()성의 특성을 갖는다.

* 다음 문장을 <보기>와 같이 단어로 나누시오.

<보기>
나V는V동생V이V제일V좋다

04 나를 믿는 것은 언제나 우리 가족이다.

05 엄마는 늦은 밤에도 간식을 만들어 주신다.

2 형태소

*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06 형태소는 ()을/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07 형태소는 실질적인 ()유무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뉜다.

08 조사는 실질적인 의미는 없고 문법적인 의미만 갖고 있으므로 () 형태소이고, 홀로 쓰일 수 없으므로 () 형태소이다.

*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 표시하십시오.

09 형태소 하나가 단어 하나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

10 실질적인 뜻을 지닌 형태소는 모두 자립적이다. (○,×)

* 다음 문장의 형태소를 종류에 맞게 분류하십시오.

우리는 비를 맞고 바람에 맞서다가 드디어 길을 찾아냈다.

- 11 자립 형태소:
- 12 의존 형태소:
- 13 실질 형태소:
- 14 형식 형태소:

* 다음 문장의 형태소를 종류에 맞게 분류하십시오.

이 문제는 나한테 묻지 말고 그에게 물어라.

- 15 자립 형태소:
- 16 의존 형태소:
- 17 실질 형태소:
- 18 형식 형태소:

* 다음 문장의 형태소를 종류에 맞게 분류하십시오.

귀로는 음악을 들었고 눈으로는 풍경을 보았다.

- 19 자립 형태소:
- 20 의존 형태소:
- 21 실질 형태소:
- 22 형식 형태소:

* 다음 문장의 형태소를 종류에 맞게 분류하십시오.

나는 산으로 가자고 했지만 동생은 바다로 갔다.

- 23 자립 형태소:
- 24 의존 형태소:
- 25 실질 형태소:
- 26 형식 형태소:

정답

01 자립 02 조사 03 분리 04 나V를V믿는V것V은V언제나V우리V가족V이다 05 엄마V는V늦은V밤V에V도V간식V을V만들어V주신다 06 뜻(의미)
 07 의미 08 형식, 의존 09 ○ 10 × 11 우리, 비, 바람, 드디어, 길 12 는, 를, 맞-, -고, 에, 맞-, 서-, -다가, 을, 찾-, -아, 내-, -았-, -다
 13 우리, 비, 맞-, 바람, 맞-, 서-, 드디어, 길, 찾-, 내- 14 는, 를, -고, 에, -다가, 을, -아, -았-, -다 15 이, 문제, 나, 그 16 는, 한테, 묻-, -지, 말-, -고, 예게, 묻-, -어라
 17 이, 문제, 나, 묻-, 말-, 그, 묻- 18 는, 한테, -지, -고, 예게, -어라 19 귀, 음악, 눈, 풍경 20 로, 는, 을, 듣-, -았-, -고, 으로, 는, 을, 보-, -았-, -다
 21 귀, 음악, 듣-, 눈, 풍경, 보- 22 로, 는, 을, -았-, -고, 으로, 는, 을, -았-, -다 23 나, 산, 동생, 바다 24 는, 으로, 가-, -자, 고, 하-, -았-, -지만, 은, 로, 가-, -았-, -다
 25 나, 산, 가-, 하-, 동생, 바다, 가- 26 는, 으로, -자, 고, -았-, -지만, 은, 로, -았-, -다



어미 파악하기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E01 ★ 1등급 대비 2023 대비 9월 모평 37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국어의 어미는 용언 어간에 붙어 여러 가지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누어진다. 선어말 어미는 용언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제나 높임과 같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 선어말 어미는 하나 혹은 둘 이상이 쓰일 수도 있고 아예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어말 어미에는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가 있다. 어말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달리 하나만 붙고, 반드시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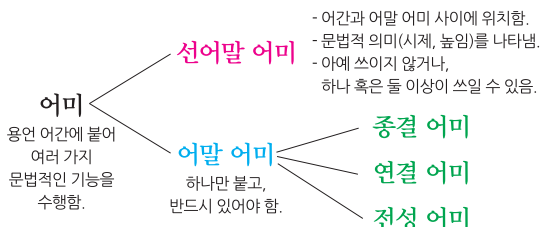
- 머무시는 동안 ㉠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 이 부분에서 물이 ㉡ 났을 가능성이 높다.
- ㉢ 번거로우시겠지만 서류를 챙겨 주세요.
- 시원한 식혜를 먹고 갈증이 싹 ㉣ 가셨겠구나.
- 항구에 ㉤ 다다른 배는 새로운 항해를 준비했다.

- ① ㉠: 선어말 어미 두 개와 연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② ㉡: 선어말 어미 없이 전성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③ ㉢: 선어말 어미 세 개와 연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④ ㉣: 선어말 어미 두 개와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⑤ ㉤: 선어말 어미 한 개와 전성 어미가 사용되었다.

★ 이 문제는?

용언의 활용형의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먼저 용언의 기본형을 파악하고 어간과 어미로 구분한 후 각 어미가 어떤 어미인지 그 기능을 바탕으로 찾아야 한다.

<보기> 분석



| 선택지 분석 | [① 20% ② 5% ③ 30% ④ 42% ⑤ 3%]

	기본형	형태소 분석
㉠ 즐거우셨길	즐겁다	'으시-'는 받침이 있는 어간 뒤에, '사-'는 받침이 없는 어간 뒤에 결합함. (풀) 높임을 나타냄. → '즐겁다'는 어간, '으시-'는 선어말 어미, '-았-'는 어말 어미, '-기'는 목적격 조사 '르'는 '를'보다 구어적으로 사용되는 목적격 조사임. (풀)
① ㉠ '즐거우셨길'에는 선어말 어미 '()', '()'와(과) (종결 / 연결 / 전성) 어미 '()'이(가) 사용되었다.		

	기본형	형태소 분석
㉡ 났을	새다	과거 시제 → 새- + -었- + -을 → 용언이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하게 만드는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관형사형 전성 어미 '섯-'은 '새었-'의 준말로, '내'로 끝나는 어간 뒤에 '-었-'이 결합하여 줄어들면 준 대로 적음. (풀)
② ㉡ '났을'에는 선어말 어미 '()'와(과) (종결 / 연결 / 전성) 어미 '()'이(가) 사용되었다.		

	기본형	형태소 분석
㉢ 번거로우시겠지만	번거롭다	높임을 나타냄. → '번거롭다'는 어간, '으시-'는 선어말 어미, '-겠-'는 어말 어미, '-지만'은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번거롭다'는 어간이 'ㅂ'으로 끝나는 용언으로, ㅂ 불규칙 활용을 함. (풀)
③ ㉢ '번거로우시겠지만'에는 선어말 어미 '()', '()'와(과) (종결 / 연결 / 전성) 어미 '()'이(가) 사용되었다.		

	기본형	형태소 분석
㉣ 가셨겠구나	가시다	과거 시제 → 추측을 나타냄. 가시- + -었- + -겠- + -구나 '섯-'은 '시었-'의 준말로, 'ㅣ'로 끝나는 어간 뒤에 '-었-'이 결합하여 줄어들면 준 대로 적음. (풀)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④ ㉣ '가셨겠구나'에는 선어말 어미 '()', '()'와(과) (종결 / 연결 / 전성) 어미 '()'이(가) 사용되었다.		

	기본형	형태소 분석
㉤ 다다른	다다르다	다다르- + -ㄴ → 용언이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하게 만드는 어말 어미, 관형사형 전성 어미
⑤ ㉤ '다다른'에는 ()형 전성 어미 '()'이(가) 사용되었다.		

정답

가- 'ㄹ'을 붙여 ㉠ ㄴ- 'ㄹ'을 붙여 'ㄹ'을 붙여 'ㄹ'을 붙여 ㉡ ㄹ- 'ㄹ'을 붙여 'ㄹ'을 붙여 ㉢ ㄹ- 'ㄹ'을 붙여 'ㄹ'을 붙여 ㉣ ㄹ- 'ㄹ'을 붙여 'ㄹ'을 붙여 ㉤ ㄹ- 'ㄹ'을 붙여 'ㄹ'을 붙여

06 DAY



E

품사 I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E02



2022 실시 3월 학평 37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선생님: 단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준	분류
㉠	가변어, 불변어
㉡	용언,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	동사, 형용사,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자, 이제 아래 문장의 단어들을 탐구해 봅시다.

음, 우리가 밝은 곳에서 그 나비 하나를 또 잡았어.

학생: [A]

선생님: 네, 맞아요.

- '나비 하나를 또 잡았어'는 ㉠에 따라 분류하면 가변어 한 개, 불변어 네 개를 포함합니다.
- '나비 하나를'은 ㉡에 따라 분류하면 체언 두 개, 관계언 한 개를 포함합니다.
- '음, 우리가 밝은 곳에서 그 나비 하나를 또 잡았어'는 ㉢에 따라 분류하면 아홉 개의 품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 '밝은'과 '잡았어'는 ㉡이나 ㉢ 중 어느 것에 따라 분류 하더라도 서로 다른 부류로 분류됩니다.
- '그'와 '또'는 ㉡에 따라 분류하면 수식언이고, ㉢에 따라 분류하면 각각 관형사, 부사입니다.

E03



2013 실시 3월 학평(A) 12

<보기>의 품사 분류 기준에 따라 예문의 단어를 분류해 보았다. 적용한 기준에 따른 분류로 알맞은 것은? [3점]

<보기>

□ 품사 분류 기준

- 형태에 따라: 가변어, 불변어
-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
-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 예문

- 호수가 깊다.
- 강의 깊이는 누구도 모른다.

	기준	분류 (* 는 분류의 경계를 표시함.)
①	형태	깊다, 깊이 호수, 가, 강, 의, 는, 누구, 도, 모른다
②	기능	깊다, 모른다 호수, 강, 깊이 누구 가, 의 는, 도
③	기능	깊다, 모른다 호수, 강, 깊이, 누구 가, 의, 는, 도
④	의미	깊다, 깊이 모른다 호수, 강 누구 가, 의, 는, 도
⑤	의미	깊다 깊이 모른다 호수 강 누구 가 의 는 도

E04



1등급 대비

2019(10월)/교육청 14

<보기>의 밑줄 친 단어의 품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ㄱ. 그곳에서는 빵을 아주 쉽게 구울 수 있다.
- ㄴ. 그 사람은 자기가 잠을 잘 잤다고 말했다.
- ㄷ. 멋진 형이 근처 식당에서 밥을 지어 왔다.

- ㄱ의 '그곳'과 ㄴ의 '그'는 어떤 처소나 대상을 지시하는 대명사이다.
- ㄱ의 '아주'와 ㄴ의 '잘'은 용언 앞에 놓여서 그 뜻을 한정하는 부사이다.
- ㄱ의 '구울'과 ㄷ의 '지어'는 용언의 어간이 불규칙적으로 활용되는 동사이다.
- ㄱ의 '쉽게'와 ㄷ의 '멋진'은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 ㄴ의 '가'와 ㄷ의 '에서'는 앞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7

- 가변어**
형태가 변하는 단어(65p.)
- 가시다**
어떤 상태가 없어지거나 달라지다.
예 동생의 위로에 슬픔이 씻은 듯이 **가셨다**.
- 가정** [假 거짓 **가** + 定 정할 **정**]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임시로 인정함.
예 나는 작년부터 올해에는 시험이 실시된다는 **가정** 하에 준비를 해 왔다.
- 가획의 원리**
기본자에 획을 더해 센 소리를 표현하는 원리 (214p.)
- 가획자**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214p.)
- 간접** [間 사이 **간** + 接 이을 **접**]
중간에 매개(媒介)가 되는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통하여 맺어지는 관계
예 TV 드라마 중간에 나오는 PPL은 광고의 **간접** 효과를 노린 것이다.
- 간접 높임**
주체와 관련된 대상을 통해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138p.)
- 간접 발화**
발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169p.)
- 간접 인용**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말하는 이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인용하는 것(124, 150p.)
- 감탄문**
말하는 이가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136p.)
- 감탄사**
놀람, 느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단어(82p.)
- 값하다**
어떤 것에 합당한 노릇이나 구실을 하다.
예 그 집은 고급 주택이라는 이름에 **값하는** 호화로운 곳이었다.
- 객체** [客 손님 **객** + 體 몸 **체**]
문장 내에서 동사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
- 객체 높임법**
서술어의 객체(목적어, 부사어)를 높이는 방법 (138p.)
- 갱신** [更 다시 **갱** + 新 새로운 **신**]되다
이미 있던 것이 고쳐져 새롭게 되다.
예 전통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추이에 따라 **갱신되고** 변모되는 것이다.
- 거북하다**
마음이 어색하고 쑥스럽거나 미안하여 편하지 않다.

- 거센소리**
예사소리, 된소리보다 세고 거친 느낌을 주는 소리(16p.)
- 거센소리되기**
'ㅎ'과 예사소리가 결합해 거센소리로 발음되는 현상(33p.)
- 격 조사**
앞말이 문장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게 하는 조사 (82p.)
- 견인력** [牽 끌 **견** + 引 끌 **인** + 力 힘 **력**]
어떠한 사물을 끌어서 당기는 힘
- 결정체** [結 맺을 **결** + 晶 맑을 **정** + 體 몸 **체**]
결정이 성장하여 일정한 형상을 이룬 물체
예 높은 대기 중의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땅 위로 떨어지는 얼음의 **결정체**이다.
- 결합체** [結 맺을 **결** + 合 합할 **합** + 體 몸 **체**]
둘 이상의 개체가 결합하여 이룬 조직체
예 사이 보그란 생물 본래의 기관과 같은 기능을 조절하고 제어하는 기계 장치를 생물에 이식한 **결합체**를 뜻한다.
- 겸양** [謙 겸손할 **겸** + 讓 사양할 **양**]
겸손한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함.
예 그는 **겸양**의 미덕이 돋보이는 사람이다.
- 겹겹이**
여러 겹으로
- 겹눈**
한 잎겨드랑이에서 나오는 둘 이상의 싹
예 이 품종은 **겹눈**이 많이 형성된다.
- 겹문장**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 (120p.)
- 경계** [境 지경 **경** + 界 지경 **계**]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
예 그 영화는 꿈과 현실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묘사되어 있다.
- 계층적** [階 계단 **계** + 層 층 **층** + 的 과녁 **적**]
사회적 지위나 단계, 관계에 관한 것
예 사회 방언은 한 언어에서, **계층적**으로 분화되어 직업, 연령, 성별 따위에 따라 특징적으로 쓰는 말을 뜻한다.
- 고모음**
발음 시 입을 조금 열어서 혀의 위치가 높은 모음 (18p.)
- 고유어** [固 굳을 **고** + 有 있을 **유** + 語 말씀 **어**]
해당 언어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 국어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하늘', '땅' 따위가 있다.
예 순화어는 지나치게 어려운 말이나 외래어 등을 알기 쉬운 **고유어**로 순화한 말을 이른다.

- 고유 명사**
특정한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붙인 이름 (65p.)
- 고즈넉하다**
고요하고 아늑하다.
예 우리는 **고즈넉한** 호숫가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 곡창** [穀 곡식 **곡** + 倉 곳집 **창**]
곡식이 많이 생산되는 지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예 우크라이나는 흑토(黑土) 평원에 위치한 **곡창** 지대로, 밀 생산이 세계적이며 공업이 발달하였다.
- 곰곰이**
여러모로 깊이 생각하는 모양
예 사람들은 나를 천방지축이라고 하지만 나도 **곰곰이** 생각에 잠길 때가 있다.
- 곳간** [庫 곳집 **고** + 間 사이 **간**]
물건을 간직하여 두는 곳
예 **곳간** 열쇠를 너만 아는 곳에 잘 간직하도록 해라.
- 공교** [工 장인 **공** + 巧 교묘할 **교**]롭다
생각지 않았거나 뜻하지 않았던 사실이나 사건과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것이 기이하다고 할 만하다.
예 정말 **공교롭게도** 할머니와 아버지의 생신이 같다.
- 공권력** [公 공변될 **공** + 權 권세 **권** + 力 힘 **력**]
국가나 공공 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
예 주말마다 시위가 계속되자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하였다.
- 공금** [公 공변될 **공** + 金 쇠 **금**]
개인의 돈이 아닌 어떤 조직이나 모임의 구성원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돈
예 **공금**을 횡령한 것은 중대한 범죄이다.
- 공덕** [功 공 **공** + 德 덕 **덕**]
착한 일을 하여 쌓은 업적과 어진 덕
예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그 사람의 **공덕**을 이야기하였다.
- 공론** [公 공변될 **공** + 論 논의할 **론**]
여럿이 의논함. 또는 그런 의논
예 한동안 머리를 맞대고 **공론**을 하였으나,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다.
- 공모전** [公 공변될 **공** + 募 모을 **모** + 展 펼 **전**]
공개 모집한 작품의 전시회
예 2000년대 이후 민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화교실, **공모전**, 민화아트페어가 생겨나고 잡지도 창간되었다.
- 공모** [公 공변될 **공** + 募 모을 **모**]하다
일반에게 널리 공개하여 모집하다.
예 저축에 얽힌 여러분의 생활 체험 수기를 **공모**합니다.

문법 개념 찾아보기

ㄱ

가변어	65
기획의 원리	214
기획자	214
간접 높임	138
간접 발화	169
간접 인용	124, 150
감탄문	136
감탄사	82
객체 높임법	138
거듭적기	220
거센소리	16
거센소리되기	33
격 조사	82
겹문장	120
고모음	18
고유 명사	65
과거 시제	140
관계언	82
관형격 조사	82
관형사	80
관형사형 어미	114
관형어	114
관형절	124
교체	22
구개음화	26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207
규칙 활용	69
기본자	214
긴 부정	150
끓어적기	218
<b style="font-size: 1.2em;">ㄴ	
'ㄴ' 첨가	33
높임 표현	138
능동 표현	148

능력 부정	150
<b style="font-size: 1.2em;">ㄷ	
'ㄷ' 불규칙	69
다의 관계	87
단모음	18
단어	50
단일어	52
담화	169
담화의 맥락	169
대등적 연결 어미	120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	120
대명사	65
대용 표현	169
독립 성분	114
독립어	114
독립언	82
동사	67
동음이의 관계	87
동작상	140
동화	26
된소리	16
된소리되기	24
두음 법칙	178
띄어쓰기	182
<b style="font-size: 1.2em;">ㄹ	
'ㄹ' 탈락	31, 69
'ㄹ' 불규칙	69
'ㄹ' 불규칙	69
<b style="font-size: 1.2em;">ㅁ	
마찰음	16
명령문	136
명사	65
명사절	124
명사형 어미	124

모음	18
모음 탈락	31
목적격 조사	82
목적어	110
목청소리(후음)	16
문법 요소	136
문장	108
문장 구조	120
문장 부사	80
문장 부사어	112
문장 성분	108
미래 시제	140
<b style="font-size: 1.2em;">ㅂ	
'ㅂ' 불규칙	69
반모음	18
반모음 첨가	33
반의 관계	89
발화	169
보격 조사	82
보어	110
보조사	82
보조 용언	67
보통 명사	65
복합어	52
본용언	67
부사	80
부사격 조사	82
부사어	112
부사절	124
부속 성분	112
부정 부사	80
부정 표현	150
분절 음운	14
불규칙 활용	69
불변어	65

비분절 음운	14
비음	16
비음화	24
비통사적 합성어	56
<b style="font-size: 1.2em;">ㅅ	
'ㅅ' 불규칙	69
사동 접미사	148
사동 표현	148
사이시옷	180
사이소리 현상	33, 196
상대 높임법	138
상하 관계	89
상형의 원리	214
서수사	65
서술격 조사	82
서술어	108
서술절	124
선어말 어미	69, 138
성분 부사	80
성분 부사어	112
성상 관형사	80
성상 부사	80
성상 형용사	67
센입천장소리(경구개음)	16
수 관형사	80
수사	65
수식언	80
순행 동화	26
시간 표현	140
시제	140
실질 형태소	50
<b style="font-size: 1.2em;">ㅇ	
'ㅇ/ㄱ' 탈락	31
안긴문장	122

차례

PART 1 언어

A 국어의 음운 체계	2
B 음운 변동 I	4
C 음운 변동 II	8
D 단어의 구조와 형성	28
E 품사 I	38
F 품사 II	49
G 단어의 의미 관계	50
H 사전 활용	54
I 문장 성분	67
J 문장 구조	73
K 문법 요소 I	88
L 문법 요소 II	95
M 정확한 문장 표현	105
N 담화	114
O 한글 맞춤법	120
P 표준어와 표준 발음법	133
Q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143
R 한글의 창제 원리	144
S 중세·근대·현대 국어의 비교	146
T 개념 복합 유형	165
U 지문 세트 유형 - 현대 국어 단독	192
V 지문 세트 유형 - 중세·근대·현대 국어 비교	210

PART 2 매체

W 매체	254
X 언어와 매체 복합	298



C 음운 변동 II

C 01 정답 ⑤ *음운 변동 파악하기 ★1등급 대비

[① 8% ② 8% ③ 30% ④ 7% ⑤ 4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7 대비 6월 모평 13

<보기>

- ㉠ 맑+네 → [망네] ㉡ 낮+일 → [난닐]
- 맑네 → [막네] → [망네] 낮일 → [난일] → [난닐] → [난닐]
- ㉢ 꽃+말 → [꼰말] ㉣ 굽+고 → [글꼬]
- 꽃말 → [꼰말] → [꼰말] 굽고 → [글고] → [글꼬]

>오해 정답 ?

⑤ ㉢: '꽃+말 → [꼰말]'에서처럼 자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이 있다.

꽃말 → [꼰말] (거센소리되기) 나타나지 않음.

㉢ 굽+고 → [글고] → [글꼬]

리 → 리 기 → 기

자음군 단순화(탈락) 된소리되기(교체)

맑+네 → [망네]

ㅎ+스 → ㅅ

거센소리되기(축약)

㉢ '굽고'는 '굽다'의 어간 '굽-'과 어미 '-고'가 결합한 말이다. 'ㅎ'으로 끝나는 어간과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 어간의 끝소리 'ㅎ'은 [ㄹ]로 발음하고, 어미의 첫소리 'ㄱ'은 [ㄱ]으로 발음한다. 즉, '굽고'는 겹받침 'ㅎ' 중 'ㄱ'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와 'ㄱ'이 [ㄱ]으로 교체되는 된소리되기(교체)가 일어나 [글꼬]로 발음된다. 이때 자음 축약은 일어나지 않았다.

'잊지[잊치]'는 'ㅎ'과 'ㄱ'이 만나 [ㅅ]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교체)가 일어나 [잊치]로 발음된다.

>오해 오답 ?

① ㉠: '맑+네 → [막네]'에서처럼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맑도 → [막도] (자음군 단순화) → [막도] (된소리되기) 자음군 단순화

㉠ 맑+네 → [막네] → [망네]

리 → 리 기+ㄴ → 기+ㄴ

자음군 단순화(탈락) 비음화(교체)

값+도 → [갑도] → [갑도]

ㅅ → ㅅ ㄷ → ㄷ

자음군 단순화(탈락) 된소리되기(교체)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은 자음군 단순화이다.

㉠ '맑네[망네]'는 겹받침 'ㅎ' 중 'ㄹ'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막네]가 된다. 그리고 파열음 'ㄱ'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ㅇ]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망네]로 발음된다.

'값도[갑도]'는 겹받침 'ㅅ' 중 'ㄱ'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갑도]가 된다. 그리고 'ㄷ'이 'ㅅ' 뒤에서 [ㄷ]으로 교체되는 된소리되기(교체)가 일어나 [갑도]로 발음된다.

② ㉡, ㉣: '입+니 → [임니]'에서처럼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진 음운 변동이 있다.

입니 → [임니] (비음화) 자음 동화(비음화, 유음화)

㉢ 꽃+말 → [꼰말] → [꼰말]

ㅅ → ㅅ 기+ㅁ → 기+ㅁ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 비음화(교체)

입+니 → [임니]

기+ㄴ → 기+ㄴ

비음화(교체)

㉠ '맑네[망네]'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ㄹ'이 탈락하고, 파열음 'ㄱ'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ㅇ]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망네]로 발음된다.

㉢ '꽃말[꼰말]'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음절 끝 'ㅅ'이 [ㄷ]으로 교체되어 [꼰말]이 된다. 그리고 파열음 [ㄷ]이 비음 'ㅁ' 앞에서 비음 [ㄴ]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꼰말]로 발음된다.

'입니[임니]'는 'ㅅ'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ㅇ]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임니]로 발음된다.

③ ㉡: '물+약 → [물락]'에서처럼 자음이 교체된 음운 변동이 있다.

물약 → [물낙] ('ㄴ' 첨가) → [물락] (유음화)

㉡ 낮+일 → [난일] → [난닐] → [난닐]

ㅅ → ㄷ 'ㄴ' 첨가 기+ㄴ → 기+ㄴ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

비음화(교체)

물+약 → [물낙] → [물락]

'ㄴ' 첨가

ㄹ+ㄴ → ㄹ+ㄴ

유음화(교체)

㉡ '난닐'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음절 끝 'ㅅ'이 [ㄷ]으로 교체되어 [난닐]이 된다. '난닐'은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낮'과 모음 'ㅣ'로 시작하는 명사 '일'이 결합한 말로, 두 형태소 사이에 'ㄴ'이 첨가되어 [난닐]이 된다. 그리고 [ㄷ]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ㄴ]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난닐]로 발음된다.

'물약'은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물'과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명사 '약'이 결합한 말로, 두 형태소 사이에 'ㄴ'이 첨가되어 [물낙]이 된다. 그리고 첨가된 [ㄴ]이 유음 'ㄹ' 뒤에서 유음 [ㄹ]로 교체되는 유음화가 일어나 [물락]으로 발음된다.

매력 오답

많은 학생이 유음화와 비음화 모두 자음이 교체된 음운 변동이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 유음화, 비음화와 같은 음운 변동이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도 알아두어야 한다.

④ ㉢, ㉣: '팔+죽 → [판죽]'에서처럼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팔죽 → [판죽] (음절의 끝소리 규칙) → [판죽] (된소리되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팔+죽 → [판죽] → [판죽]

ㅍ → ㅍ ㅈ → ㅈ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 된소리되기(교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으로 제한된다는 규칙이다. 이에 따라 ㉡ '난닐[난닐]'에서 '낮'의 끝소리 'ㅅ'과 ㉢ '꽃말[꼰말]'에서 '꽃'의 끝소리 'ㅅ'은 [ㄷ]으로 교체된다.

'판죽[판죽]'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팔'의 끝소리 'ㅍ'이 [ㅍ]으로 교체된다. 그리고 [ㄷ] 뒤에서 'ㅈ'이 [ㅈ]으로 교체되는 된소리되기(교체)가 일어나 [판죽]으로 발음된다.

C 02 정답 ① *음운 탈락 파악하기 [정답률 85%]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2022 실시 7월 학평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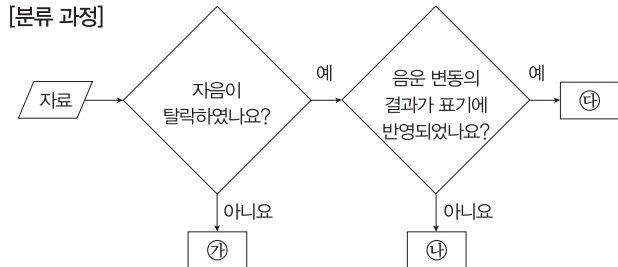
<학습 활동>

[자료]의 단어들은 음운 변동 중 탈락이 일어난 예이다. 단어들을 [분류 과정]에 따라 분류할 때 ㉠, ㉡, ㉢에 들어갈 단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료]

- ㉠ 뜨-+-어서 → 떠서[떠서]
- 'ㄷ' 탈락
- ㉡ 동글-+-ㄴ → 동근[동근]
- 'ㄹ' 탈락
- ㉢ 좋-+-아 → 좋아[조아]
- 'ㅎ' 탈락

[분류 과정]





D 단어의 구조와 형성

D 01 정답 ⑤ * 형태소 파악하기 [정답률 8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2023 대비 6월 모평 38

〈학습 활동〉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와 의미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형태소 구분 기준 ① 형태소 구분 기준 ②

	자립성의 유무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의미의 유형			
실질 형태소		㉠	㉡- 용언 어간
형식 형태소			㉢- 어미, 조사, 접사

다음 문장의 형태소를 ㉠, ㉡, ㉢으로 분류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해 보자.

우리는 비를 맞고 바람에 맞서다가 드디어 길을 찾아냈다.

우리	는	비	를	맞-	-고	바람	에	맞-	서-
대명사	조사	명사	조사	어간	어미	명사	조사	접사	어간
㉠	㉢	㉠	㉢	㉡	㉢	㉠	㉢	㉢	㉡
-다가	드디어	길	을	찾-	-아	내-	-었-	-다	
어미	부사	명사	조사	어간	어미	어간	어미	어미	
㉢	㉠	㉠	㉢	㉡	㉢	㉡	㉢	㉢	

>오해 정답 ?

⑤ '찾아냈다'에는 ㉡과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찾-', '내', '-아', '-었-', '-다'
'찾아냈다'를 형태소 분석하면 '찾-', '-아', '내', '-었-', '-다'로 분석할 수 있다. '찾-'과 '내-'는 어간으로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요소에 의존하여 쓰이므로 ㉡에 속한다. '-아', '-었-', '-다'는 어미로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요소에 의존하여 쓰이므로 ㉢에 속한다.

>오해 오답 ?

- ① '우리는'의 '우리'와 '드디어'는 ㉡에 속한다.
대명사 '우리', 부사 '드디어'
- ② '비를'와 '길을'에는 ㉠과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명사 '비', '길', 조사 '을'
- ③ '맞고'의 '맞-'과 '맞서다가'의 '맞-'은 모두 ㉢에 속한다.
어간 '맞-', 접사 '맞서-'
'맞고'의 형태소를 분석하면 어간인 '맞-'과 어미인 '-고'로 분석된다. 어간 '맞-'은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른 대상에 의존하여 쓰이므로 ㉡에 속한다.
'맞서다가'의 '맞-'은 '마주' 또는 '서로 엇비슷한' 뜻을 더하는 접사이다.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른 대상에 의존하여 쓰이므로 ㉢에 속한다.
- ④ '바람에'에는 ㉡과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명사 '바람', 조사 '에'

개념 보충

형태소의 개념과 분류

형태소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로, 자립성의 유무와 의미의 유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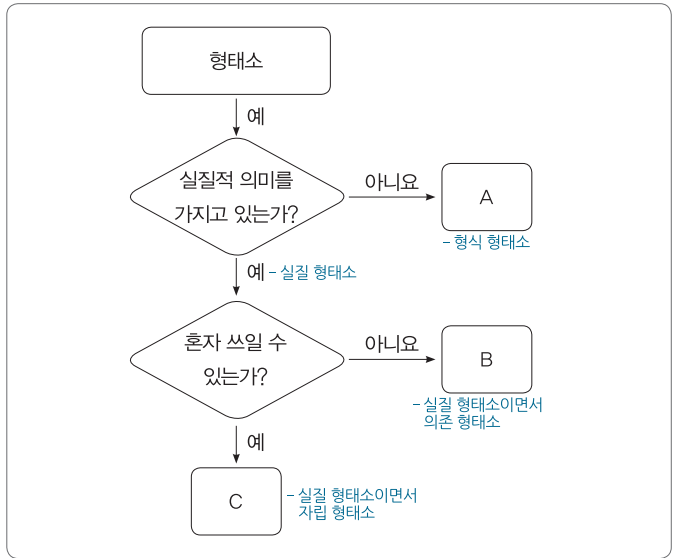
자립성의 유무	자립 형태소	다른 형태소의 도움 없이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예 꽃, 사과, 그리고, 고양이
	의존 형태소	홀로 쓰일 수 없고 항상 다른 형태소와 함께 쓰이는 형태소 예 예쁘-, -다, 못-, 쌓-
의미의 유형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 예 사과, 하늘, 드디어, 마침내
	형식 형태소 (문법 형태소)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 예 이/가, 을/를, -다, -니까

D 02 정답 ④ * 형태소 파악하기

1등급 대비

[① 3% ② 1% ③ 53% ④ 40% ⑤ 1%]

다음의 탐구 과정에 따라 <보기>의 ㉠~㉢을 분류하고자 한다. A~C에 해당하는 사례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2013 실시 4월 학평 A(B) 11



<보기>

북두칠성은 ㉠ 어느 계절이나 북쪽 밤하늘을 보면 쉽게 찾을 수 ㉡ 있다.
실질, 자립 형태소 / 실질, 의존 형태소
북두칠성을 흔히 국자㉢에 비유하는데, 그것이 국자라면 국을 쏟을 때
형식, 의존 형태소
국이 흐를 마지막 두 별을 잇㉢는 직선상에 있는 별 중 가장 밝고, 두 별의
형식, 의존 형태소
간격의 다섯 배쯤에 있는 별을 발견할 것이다. 그 ㉢ 자리에 보이는 것이
실질, 자립 형태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밤하늘의 북극성이다.

>오해 정답·오답 ?

A 형식 형태소 B 실질, 의존 형태소 C 실질, 자립 형태소

- ④ ㉢, ㉡, ㉠

'어느 계절이나'에서 ㉠ '어느'는 관련되는 대상이 특별히 제한되지 않음을 이룰 때 쓰는 관형사이다.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이면서 혼자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이다.
'찾을 수 있다'에서 ㉡ '잇'은 용언 '있다'의 어간이다.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이면서 어미와 결합해서 쓰이는 의존 형태소이다.
'국자에 비유하는데'에서 ㉢ '에'는 앞말이 기준이 되는 대상이나 비교의 대상이 되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실질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 형식 형태소 이면서 체언 등과 결합해서 쓰이는 의존 형태소이다.
'두 별을 잇는'에서 ㉢ '는'은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고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실질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 형식 형태소이면서 어간과 결합해서 쓰이는 의존 형태소이다.
'그 자리에 보이는'에서 ㉢ '자리'는 '사람이나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명사이다.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이면서 혼자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이다.

매력 오답

① '어느'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실질 형태소인지,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 형식 형태소인지 헷갈렸을 것이다.
형식 형태소에는 조사와 어미, 접사가 해당하는데, '어느'는 관형사이므로 실질 형태소이다.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품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도움이 된다.

D 10 정답 ③ * 합성어 파악하기 ① 12% ② 10% ③ 47% ④ 18% ⑤ 10%

〈보기〉의 ㉠~㉣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3점] 2020 실시 10월 학평 15

- [A]: 비통사적 합성어
- [B]: 합성어의 품사와 뒤 어근의 품사가 일치하지 않는 통사적 합성어
- [C]: 합성어의 품사와 뒤 어근의 품사가 일치하는 통사적 합성어

〈보기〉

※ 다음 밑줄 친 단어를 통해 합성어의 형성 과정을 탐구해 보자.

- 이곳은 ㉠ 이른바 우리나라의 곡창 지대이다.
이른(형용사) + 바(명사) → 이른바(부사)
- 봉대로 ㉡ 감싼 상처가 정말 심각해 보였다.
감(동사) + 싸다(동사) → 감싸다(동사)
- 집행부가 질서를 ㉢ 바로잡을 계획을 세웠다.
바로(부사) + 잡다(동사) → 바로잡다(동사)
- 대학교에 가려면 ㉣ 건널목을 건너야만 한다.
건널(동사) + 목(명사) → 건널목(명사)

[탐구 과정]

어근의 배열이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에 맞습니까?
동사 어간+ 관형사형 어미+ 명사, 동사 어간+ 연결 어미+ 동사, 명사+명사/동사, 부사+동사

아니요 → [A] → 비통사적 합성어

↓ 예 → 통사적 합성어

합성어의 품사와 합성어를 이루는 뒤 어근의 품사가 일치합니까?

아니요 → [B]

↓ 예

[C]

오해 틀렸나?

각 단어가 통사적 합성어인지 비통사적 합성어인지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다.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에는 명사+명사/동사, 동사 어간+ 관형사형 어미+ 명사, 동사 어간+ 연결 어미+ 동사, 부사+ 동사 등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두어야 한다.

오해 정답·오답?

③ [A] ㉡ [B] ㉠ [C] ㉢, ㉣

형태소 분석	문장 구성 방식	품사 변화	A/B/C
㉠ $\frac{\text{이른-}}{\text{어간}} + \frac{\text{-르}}{\text{어미}}$ + $\frac{\text{바}}{\text{명사}}$ <small>용언의 관형사형</small> 용언의 관형사형이 명사와 결합함.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임. (통사적 합성어)	바 → 이른바 <small>명사 부사 일치 ×</small>	[B]
㉡ $\frac{\text{감-}}{\text{어간}} + \frac{\text{싸-}}{\text{어간}}$ + $\frac{\text{-르}}{\text{어미}}$ <small>어간</small> 연결 어미 없이 어간과 어간이 결합함.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이 아님. (비통사적 합성어)	싸다 → 감싸다 <small>동사 동사 일치</small>	[A]
㉢ $\frac{\text{바로}}{\text{부사}}$ + $\frac{\text{잡-}}{\text{어간}}$ + $\frac{\text{-을}}{\text{어미}}$ <small>어간</small> 부사가 동사를 꾸며줌.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임. (통사적 합성어)	잡다 → 바로잡다 <small>동사 동사 일치</small>	[C]
㉣ $\frac{\text{건너-}}{\text{어간}} + \frac{\text{-르}}{\text{어미}}$ + $\frac{\text{목}}{\text{명사}}$ <small>용언의 관형사형</small> 용언의 관형사형이 명사와 결합함.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임. (통사적 합성어)	목 → 건널목 <small>명사 명사 일치</small>	[C]

D 11 정답 ① * 단어의 형성 파악하기 [정답률 88%]

〈보기〉의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는 것은? 2023 실시 10월 학평 38

- ㉠ 합성어
- ㉡ 파생어이면서 어근과 품사가 같은 것
- ㉢ 파생어이면서 어근과 품사가 다른 것

〈보기〉

학생 1: 우리 스무고개 할래? [자료]에 있는 단어 중에서 내가 무얼 생각 하는지 맞춰 봐.

〈자료〉

높이다 접히다 여닫다

학생 2: 좋아, 그 단어는 어근과 어근으로 구성되었나?
어근 + 어근: 합성어

학생 1: 아니,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져 있어.
어근 + 접사: 파생어

학생 2: 그렇다면 ㉠은 아니겠군. 그러면 단어의 품사가 어근의 품사와 같니? ㉡: 합성어 - '여닫다(열- + 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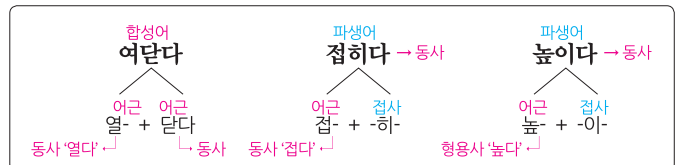
학생 1: 아니, 이 단어의 품사는 어근의 품사와 달라.

학생 2: ㉢은 접사가 결합하며 품사가 달라지지 않았고, ㉡: 파생어이면서 어근과 품사가 같은 것 - '접다(동사) → 겹치다(동사)'
㉣은 접사가 결합하며 품사가 달라졌네. 그렇다면 네가 생각 ㉢: 파생어이면서 어근과 품사가 다른 것 - '높다(형용사) → 높이다(동사)' 하는 단어는 ㉣이구나!

학생 1: 맞아, 바로 그거야.

오해 정답·오답?

- ㉠ ㉡ ㉢
- ① 여닫다 겹치다 높이다
열- + 닫다 접- + -히- + -다 높- + -이- + -다



특강

☆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서 동사를 만드는 사동 접미사

사동 접미사	사동 접미사가 결합한 예	
	형용사	동사
-이-	높다	높이다
-히-	괴롭다	괴롭히다
	붉다	붉히다
	넓다	넓히다
-추-	낮다	낮추다
	늦다	늦추다

* 합성 명사의 형성

출제

① 선생님: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인공위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죠? 그런데 '인공위성'은 옛날에는 쓰이지 않았던 말입니다. '인공위성'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게 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행성의 궤도를 도는 인공적 물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물체를 가리키는 말이 필요해서 '인공위성'이라는 말이 생긴 거겠죠? 이 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학생 1: '인공'과 '위성'을 합쳐 만든 것입니다.

* ① 요약: '인공위성' 단어의 형성

②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공위성'이라는 말을 만든 것처럼 새 단어를 만드는 원리를 알아볼 텐데, 그중에서도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합성 명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합성 명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학생 2: 선생님, 합성 명사는 명사와 명사가 합쳐진 말 아닌가요?

선생님: 네, 그런 경우가 많지요. 예를 들어 '논발, 불고기'처럼 명사에 명사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밖에 용언의 활용형이 명사와 결합한 '건널목, 노림수, 섞어찌개'와 같은 경우도 있고 '새색시'처럼 명사를 꾸며 주는 관형사가 앞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 ② 요약: 합성 명사의 형성 원리

③ 학생 3: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신 합성 명사들을 보니 뒤의 말이 모두 명사네요?

선생님: 그래요. 우리말에서 합성어의 품사는 뒤에 오는 말의 품사와 같은 것이 원칙이에요. 앞에서 말한 예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 명사가 아닌 품사들로만 이루어진 합성 명사도 있습니다.

* ③ 요약: 합성어의 품사를 결정하는 원칙

④ 학생 4: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생각해 보니 요즘 자주 쓰는 말들은 그런 방식과는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인간'이라는 말은 '인터넷'과 '강의'가 합쳐지면서 줄어든 말인데, 앞말과 뒷말의 첫 음절만 따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또한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컴시인'은 '컴퓨터'와 '원시인'이 합쳐지면서 줄어든 말인데, 앞말의 첫 음절과 뒷말의 둘째, 셋째 음절을 따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 ④ 요약: 줄임말을 만드는 방법

■ 이것이 핵심!: 합성 명사

합성 명사의 형성 원리	① 명사 + 명사 예) 논발, 불고기 ② 용언의 활용형 + 명사 예) 건너목, 노림수, 섞어찌개 ③ 관형사 + 명사 예) 새색시
합성어의 품사 결정 원칙	- 뒤에 오는 말의 품사와 같은 것이 원칙임. - 예외: 명사가 아닌 품사들로만 이루어진 합성 명사도 있음.
줄임말을 만드는 방법	① 앞말의 첫 음절 + 뒷말의 첫 음절 예) 인간 ② 앞말의 첫 음절 + 뒷말의 둘째, 셋째 음절 예) 컴시인

[① 3% ② 48% ③ 2% ④ 42% ⑤ 2%]

<보기>의 ㄱ~ㅁ 중 윗글에서 설명한 단어 형성 방법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8 대비 9월 모평 11

단서+발상

단서	합성 명사의 형성 방법	줄임말을 만드는 방법
①	명사+명사	① 앞말의 첫음절+뒷말의 첫음절
②	용언의 활용형+명사	② 앞말의 첫음절+뒷말의 둘째, 셋째 음절
③	관형사+명사	

해결 1. 합성 명사이면서, 2. 합성 명사 형성 방법 ①~③, 3. 줄임말을 만드는 방법 ①, ②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음.

<보기>

- ㄱ. '선생님'을 줄여서 ' 쌤 '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선생+님(합성 명사가 아님.) 앞말과 뒷말의 음절을 따서 줄인 말이 아님.
- ㄴ. '개-'와 '살구'를 결합하여 '개살구'라는 말을 만들었다.
합성 명사가 아님. 줄임말이 아님.
- ㄷ. '사범'과 '대학'을 결합하여 '사대'라는 말을 만들었다.
'명사+명사'로 된 합성 명사임. 앞말과 뒷말의 첫음절을 따 줄임말임.
- ㄹ. '점잖다'라는 형용사로부터 '점잔'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명사 합성 명사가 아님.
- ㅁ. '비빔'과 '냉면'을 결합하여 '비빔냉면'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비비+ㅁ(용언의 활용형) 용언의 활용형과 명사가 결합한 합성 명사임.

>오해 정답 ?

② ㄷ, ㅁ

ㄷ. '사대'는 명사 '사범'과 '대학'으로 이루어진 합성 명사 '사범대학'의 줄임말로 앞말의 첫음절과 뒷말의 첫음절을 따서 만든 것이다. 이는 '인터넷'과 '강의'의 첫음절만 따서 만들어진 '인간'이 만들어진 방법과 동일하다.
ㅁ. '비빔냉면'은 용언의 활용형 '비빔'과 명사 '냉면'으로 이루어진 합성 명사이다. 이때 '비빔'은 동사 '비비다'의 어간 '비비-'에 명사형 어미 '-ㅁ'이 결합한 것이다. 이는 동사 '건넌다'의 활용형 '건널(건너+ㄹ)'에 명사 '목'이 결합한 '건널목', 동사 '노리다'의 활용형 '노림(노리+ㅁ)'에 명사 '수'가 결합한 '노림수', 동사 '섞다'의 활용형 '섞어(섞+어)'에 명사 '찌개'가 결합한 '섞어찌개'가 만들어진 방법과 동일하다.

매력 오답

'개살구'가 합성 명사라고 생각한 학생들이 많았다. '개살구'의 '개-'는 접사이므로 '개살구'는 합성 명사가 아니라 파생 명사이다. '개-', '차-', '보-' 등 자주 쓰이는 접사는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한다.

>오해 오답 ?

ㄱ. '선생님'은 명사 '선생'에 접사 '-님'이 결합한 파생 명사로 합성 명사가 아니다. 또한 '선생님'의 줄임말인 ' 쌤 '은 앞말과 뒷말의 음절을 따서 줄인 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개살구'는 명사 '살구'에 접사 '개-'가 결합한 파생 명사로 합성 명사가 아니다.
ㄹ. '점잔'은 형용사 '점잖다'에서 온 명사로, 이는 윗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어 형성 방법과 관련이 없다.

밑줄 친 단어 중 ㉠의 예로 적절한 것은? 2018 대비 9월 모평 12
'명사가 아닌 품사들로만 이루어진 합성 명사'

>오해 정답 ?

① 자기 잘못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부사 + 부사
'잘못'은 '답안을 잘못 쓰다'와 같이 부사로도, '잘못을 인정하다'와 같이 명사로도 쓰이는 단어인데 ㉠에서는 명사로 쓰이고 있다. 이때의 '잘'은 '익숙하고 능란하게'라는 뜻을 가진 부사이며, '못'은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이므로 '잘못'은 명사가 아닌 품사들로만 이루어진 합성 명사이다.